

프로배구 여자부 1위 경쟁 이번주 경기에도 계속된다

현대건설, '난적' 도로공사·KGC인삼공사와 차례로 대결 1위 노리는 흥국생명, 페퍼저축은행·GS칼텍스와 맞대결

프로배구 여자부의 치열한 1위 싸움은 이번주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현재 현대건설(21승 6패·승점 61)과 흥국생명(20승 7패·승점 60)은 승점 1점 차이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개막 15연승을 달리면서 선두 체제를 구축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 야스만이 지난해 12월 중순 허리 부상으로 계속 결장하면서 흥국생명에 추격을 허용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리베로 김연경이 발목 부상을 당해 경기에 뛰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웃사이드 히터 황민경 역시 허리가 좋지 않다.

현대건설은 급히 터키리그에서 뛰고 있는 몬타뇨를 대체선수로 영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하지만 현대건설은 지난 10일 최하위 페퍼저축은행에게 달미를 잡혔다.

몬타뇨는 V-리그에 적응하기 위해 나온 경기에서 13득점에 그쳤고, 공격성 공률은 37.5%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현대건설에게 매 경기 집중력이 필요하다.

1위 도약을 눈앞에 둔 흥국생명의 분위기는 좋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이겼으면, 1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기업은행 산타나와 표승주를 막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1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하지만 흥국생명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다. 이번 시즌 9경기가 남아 있고 현대건설과의 맞대결도 한 차례 예정돼 있다.

흥국생명은 엘레나와 김연경을 필두로 전열을 재정비한다.

흥국생명은 오는 15일 페퍼저축은행

과 상대하고, 19일 GS칼텍스와 맞대결을 펼친다.

페퍼저축은행은 현대건설전에서 끈끈한 저력을 보여줘 상승세에 있다. 흥국생명은 페퍼저축은행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를 봉쇄하는 게 관건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시즌 흥국생명을 가장 많이 괴롭혔다. 세 차례나 플레이오프를 벌였고, 상대전적에서 2승 2패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은 14일 홈코트인 수원체육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연패 탈출을 나섰다. 몬타뇨와 팀의 중심인 양효진의 선전이 필요한 때이다. 현대건설은 분위기를 바꾸지 못할 경우, 1위 수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

도로공사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도로공사는 공격력이 강하고, 4라운드 대결에서 현대건설을 제압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오는 17일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 엘리자벳이 이끄는 KGC인삼공사와의 맞대결을 펼친다.

/뉴스

역도 전지훈련지 메카 '진안군'

순창북중·순창고 포함 전국 선수단 방문 잇따라



진안군이 역도선수단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은 진안을 찾은 역도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안군은 새해들어 역도선수단을 비롯해 각종 체육종목 전지훈련지로 인기몰이를 하며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고 있다.

13~18일 순창북중 및 순창고 역도선수단 12명이 진안군청 역도연습장 등지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한다.

이는 올해만 해도 벌써 세 번째 전지 훈련단 유치로 관내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순창북중 및 순창고 역도선수단은 앞서 지난 2월부터 20일까지 19일간 전지훈련으로 진안군을 방문하는 등 동계기간에만 벌써 두 번째 훈련을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어 높은 만족도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전국 역도 선수단의 전지훈련이 전체 전지훈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역도 선수단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해부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

련 홍보 책자 제작·발간해 전국 지자체 및 주요 실업팀 학교 등에 배부했으며, 여러 관광 명소와 다채로운 음식 등이 운동 훈련을 위해 적합한 장소라는 호평이 이미 진안군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청 역도팀을 운영하며 구축한 현대적인 운동시설과 대한민국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 유동주 선수를 비롯해 우수 역도 선수들과

의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도 전지훈련단 유치를 제 몫을 푼다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을 찾는 모든 팀이 장엄한 마이산의 정기를 받아 앞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앞으로도 진안군이 스포츠 힐링도시의 명색에 걸맞게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오고 싶어하는 전지훈련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스마일 점퍼' 우상혁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2위

'스마일 점퍼' 우상혁(용인시청)이 올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금메달을 놓친 후 새롭게 각오를 다졌다.

우상혁은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24를 뛰어 일본의 아카비쓰 료이치(2m28)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우상혁에게는 아쉬운 성적이다.

우상혁의 라이벌이자 남자 높이뛰기 현역 최강으로 꼽히는 무타즈 에사 바르산(카타르)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경기 후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을 통해 "시즌 첫 대회를 대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지만 준비를 잘하는 것과 경기 결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목표했던 우승은 아니지만 부상없이 경기를 마쳐 만족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즌 첫 대회를 마친 우상혁은 14일 오전 귀국해 향후 일정을 정할 전망이다.

/뉴스

"아시아 최고 구단 합류 매우 기쁘다"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안드레, 전북현대 합류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가 대전에 뛰었던 경험이 있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 안드레 루이스를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브라질 명문 산투스FC 유스 출신인 안드레 루이스는 2017년 세리에B(브라질 2부리그)에 소속된 산타크루즈에서 성인 무대에 데뷔했다.

세리에B에서 2년간 활약한 안드레 루이스는 2019년 브라질 명문 코린치안스에 입단하며 세리에A(브라질 1부리그)에 올라섰고 같은 해 포르투갈자(세리에A)로 임대돼 24경기(2득점)에 나섰다.

안드레 루이스는 2020시즌을 앞두고 한국 프로축구 K리그2(2부)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임대되며 생애 첫 해외 무대에 진출했다.

그는 K리그 대전 소속으로 28경기에 나서 14득점 3도움을 기록했다.

/뉴스

아태마스터스 참가자 모집 활동 '분주'

전북체육회, 대회 관련

회원종목단체 간담회서

국내·외 체육인들

대회 참가토록 지원 강조



전북도체육회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 사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3일 아·태마스터스 대회 관련 회원종목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가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원 사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3일 도 체육회는 오는 5월 도내 일원에서 펼쳐지는 아·태마스터스 대회 관련 회원종목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가자 모집과 대회 범 조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특히 도내 참가자 모집을 비롯해 중앙·시도체육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국내·외 많은 체육인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당초 목표인원보다 참가자 모집이 저조하자

필리핀을 방문, 세계적인체육총연합회, 재필리핀대한체육회 관계자 등을 만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 체육회가 참가자 모집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첫 치러지는 국제 규모 대회이자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될 대회로 치르기 위함이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참가자 모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